

보도자료

部門 圣林 子四十十

				nes in see (i) in	
배포 일시	2022. 12. 28.(수)				
담당 부서	정책기획관	책임자	팀 장	김혜진 (044-201-3252)	
<총괄>	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	담당자	사무관	권순길 (044-201-3253)	
보도일시	2022년 12월 28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포포될시 	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28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		

'제7회 국토교통부imes스타트업imes청년재단 커피챗' 개최

- 스마트건설 새싹기업 경험 공유, 강소기업 지정 등 전방위 지원 약속 -

- □ 스마트건설은 전통적 건설산업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는 新패러다임
- 2030 건설 전 단계 디지털화·자동화로 글로벌 건설시장 선도
- □ 관련 새싹기업이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
 - 법률·투자·경영 등 다양한 전문가 배치, 인큐베이팅 체계 구축
 - 향후 5년간 성장 가능성이 큰 강소기업 100곳을 선정, 금융 등 지원
- 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와 청년재단(이사장 장예찬)은 국토교통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싹기업 소통 릴레이의 일곱 번째 만남으로 12월 28일(수) 7시 30분 광화문 청년재단 사무실에서 "제7회 국토교통부×스타트업×청년 재단 커피챗" 행사를 개최하였다.
 -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"스마트 건설은 전통적 건설산업을 **디지털 기반으로 혁신**하기 위한 **새로운 융·복합 패러다임**"이라며
 - "2030 건설 전 과정 디지털화·자동화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건설의 주역인 새싹기업들이 글로벌 건설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·투자·재정 등 다방면에서 지원하겠다"라고 말하였다.
- □ 커피챗 행사는 다양한 국토교통 신산업을 주제로 정기적으로 원 장관과 새싹기업 대표, 예비창업가, 청년 등이 직접 만나 모닝커피를 마시며 자유롭게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,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며,

제7회 커피챗 행사는 스마트건설을 주제로 진행되었다.

- □ 이번 행사에는 국토부 On통 광장을 통해 사전 접수한 예비창업가 등 청년 30여명과 스마트건설 분야 새싹기업 대표가 참석하였으며,
 - **스마트건설 새싹기업** 대표 2인(스패너 대표 이명한, 산군 대표 김태환)은 창업 동기, 서비스 개발 및 자금 조달, 창업공간 마련 과정 등 자신의 **창업기**를 진솔하게 공유하였다.
 - * (스패너) 현장 맞춤형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통합 플랫폼 개발 및 제공 (산군) 건설업체들의 현황, 평판, 실적 데이터 관리를 위한 빅데이터 솔루션
- □ 새싹기업 대표들의 발표 내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참석자들과 원 장관은 스마트건설 관련 **기업 지원방안**과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**테스트 환경 구축**,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협업 등에 대하여 토론하였다.
 - ① 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스마트건설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하는 등 산업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였고,
- ② 건설영역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그 활용에 대해서 공공과 민간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.
- □ 이에 **원 장관**은 "스마트건설 새싹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 으로 발돋움하여 글로벌 건설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"며
 - 국토부는 기술적 지원 뿐만 아니라 법률·투자·경영 등 다양한 전문가를 배치하여 인큐베이팅 체계를 구축하고, 향후 5년간 강소기업 100곳을 선정하는 등 전방위적 지원으로 민간이 스마트건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토대를 견고히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.
- □ 또한, 원 장관은 **스마트 건설의 활성화**는 단순히 건설산업의 생산성 혁신

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·안전 확보·환경 보전·청년 일자리 창출 등 시대적 과제 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히며

- ㅇ "이러한 스마트 건설 기술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스마트건설 활용촉진 특별법 제정, 스마트턴키 확대, 공공 OSC 발주 지원, 사업규모별 순차적 BIM 적용 의무화 등 실질적인 행동을 강화해 나가겠다"라고 말했다.
- □ 행사를 마무리하며 원 장관은 "국토교통 분야 새싹기업 생태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제도개선을 이뤄낼 것"이라고 약속하였다.

담당 부서	정책기획관	책임자	팀 장 김혜진(044-201-3252)
<총괄>	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	담당자	사무관 권순길(044-201-3253)
	기술안전정책관	책임자	과 장 이성훈(044-201-3549)
	기술정책과	담당자	사무관 김진우(044-201-3557)



